

일곡공원 14만t 폐기물 오염도 따라 처리 결정

광주시, 자문단 구성 제3 전문기관에 환경 정밀조사 처리비용 600억...유해성 판단엔 LH 대상 행정처분

광주시가 일곡지구(제2·3근린공원)내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14만여 톤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제3기관에 환경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이전 등 조치에 나서고,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매립지 양성화 사업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과거 생활 쓰레기 매립지였던 일곡지구 2·3근린공원에서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를 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14만 2000여t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매립 층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1989~1996년 일곡 택지지구 개발과정에서 나

온 쓰레기를 당시 한국 토지개발공사(현 LH)가 매립했으며 광주시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악취·토양오염도 모두 법적 기준 이내였다. 매립 농도의 경우 2근린공원은 불검출, 3근린공원은 5.9%로 안정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이전보다는 매립지역을 준치·양성화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시는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오염(피해) 정밀조사를 다시 진행해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조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

분(조치명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일곡지구 매립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변호사·주민·시의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환경오염조사와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환경오염조사에 대해 자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매립된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과 매립 상태 등을 확인하고, 침출수·매립 가스·토양오염도 등을 모니터링해 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를 파악한다. 조사 지점도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보다 확대한다.

시는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업체 선정과 관리·감독을 자문단이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7월까지 자문단 구성과 정밀 조사 발주 대형 기관 선정을 마치고 8월까지 대형 기

과 협약을 체결하며, 12월까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한 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매립 원인자인 LH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조치 명령)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은 최소 600억원(15톤 덩크프럭 1만여대 분), 이전에만 1년이 넘는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먼지와 악취, 소음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주민은 폐기물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장 조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어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 환경오염조사를 하겠다"면서 "특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해성 여부 등을 세밀히 살펴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대형 프로젝트 발굴 주문 정부 추진 뉴딜사업 지역 프로젝트 반영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발굴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 산업 개척,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1석 3조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에 전남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의 프로젝트들이 반영되기 위해선 중앙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동향을 통해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본연의 소소하고 중요한 일이 모여 큰 줄기를 만들 수 있어 대형프로젝트들이 선도적으로 미래발전

장흥 서까골 미리내 마을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을 공방 사업'은 지역 유휴공간을 개선해 주민화합과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전국 8개소 중 전남에서는 장흥군 서까골 미리내 마을 공방(양곡마을)이 선정됐다.

서까골 미리내 마을 공방은 지역 주민과 귀촌인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로 지난 4월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공동체이다.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사업은 돌베, 개복숭아 등 임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공동작업장 조성을 비롯 누리집 구축을 통한 인터넷 판매망 신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 컨설팅, '코로나19' 피해 극복 주민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을 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에서 마을 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운영중인 공방은 순천 2곳, 광양·장성·곡성·완도 1곳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순천시 청년센터는 청년 창업·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으로 지난 2018년 개관 이래 3만 1465명이 방문하는 등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마을 공방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에이모 'AI 생태계 활성화' 협약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이모 오승택 대표이사와 '광주시-에이모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특단대책 마련해야"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가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 사랑을 계기로 발달 장애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3일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청년과 그 어머니가 고단한 삶을 마감했다"며

"가족의 고통을 지역 사회가 책임지지 못해 그 아픔을 다 견뎌야만 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광주에만 7888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2017년 중합지원계획을 세워 국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이 시장

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서비스도 있다. 이 시장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고통과 책임을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도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고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440억 받아 전국 최다

전남도는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전국 최다인 국비 440억원을 배정 받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4000억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배정해 각 광역·시·도가 우리동네살리기(면적 5만㎡ 미만), 주거지 지원(5만~10만㎡), 일반근린(10만~15만㎡) 등 3개 유형에 대해 50곳을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과 오는 7월 초 국토교통부와 광역·시가 접수에 들어가 오는 12월까지 국토부는 70여곳, 광역·시는 50곳 등 전국 120여곳을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미 배정된 440억원으로 오는 7월 공모·접수에 나서 8월에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중앙공모에도 혁신지구사업, 총괄사업관리사업, 인정사업 등 1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올해 국토교

광주시, 여성·가족시설 29곳 운영 재개

성폭력상담소·다문화지원센터 등 센터 등 29곳이다.

시는 광주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고, 시설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불만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려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설 소득, 방역물품 확보, 안전 점검 실시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